

[결론]

호흡기 계통에서의 역동적(dynamic multi scan mode) CT는 호흡 중 역동적으로 변하는 병소 부위의 상태를 영상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질환의 기능평가 및 정량적 평가에 의한 진단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GE Highspeed Advantage(GE Medical System Milwaukee, U. S. A.) CT Scanner는 Cine Scan Mode

<09>

전산화단층 혈관조영술을 이용한 내경 동맥협착 환자의 추적검사 유용성

전남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김용완 · 안이현 · 이종호 · 김광철

[목적]

내경동맥 협착 환자에서 스텐트를 삽입한 후에 추적 검사로서 전산화단층혈관 조영술의 유용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1월에서 6월까지 본원 응급실에 내원한 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CTA는 antecubital vein에 조영제(Ultravist® 370, Optiray® 320)를 2.0 ml/sec, total 120 ml를 주입한 후 5 번째 경추에서 상방으로 thickness 3 mm, (pitch 1:1)로 약 40개 slice 정도를 30초후부터 scan하였다. 또한 Dental에 의한 metal artifact를 고려하여 neck 밑에 wedge를 받쳐서 tube angle을 cranial로 15° 경사를 주고 검사한 후 workstation에서 MPR, SSD, MIP 기법으로 영상을 재구성하였다.

[결과]

내경동맥의 협착으로 혈관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13예 중 11예(85%)에서는 전산화단층 혈관 조영술과 고식적 혈관 조영술 사이의 동맥직경의 확장정도는 변화없이 관찰되었다. 검사결과 일치하지 않는 2예 중 1예(7.5%)는 과대평가, 나머지 1예(7.5%)는 과소평가 되었다.

[결론]

CTA는 비침습적인 검사로서 외래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한 번의 검사시행으로 인하여 workstation에서 후향적으로 영상을 재구성할 수 있어 고식적 혈관 조영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10>

방사선 진단영역에서 방사선사의 부서별 의료피폭의 분석

광주보건전문대학 방사선과

한재진

1995년 7월 1일부터 1996년 6월 29일까지 모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부서별 공간 산란선 및 방사선사가 받는 피폭선량 TLD 측정치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공간 산란선량은 피사체(환자)가 두꺼울수록 chest의 경우 X선 tube 후면에서 PA일 때 2.0 mR, Lat. 일 때 4.6 mR 나타났다.
- 각 부서별 방사선사가 받는 피폭선량은 일반촬영이 0.22 mSv~1.96 mSv 조영 및 특수촬영이 0.22 mSv~1.12 mSv 혈관촬영이 0.26 mSv~30.96 mSv 전산화단층촬영이 0.20 mSv~0.40 mSv였다.
- 작업환경의 평가에서는 일반촬영 85.5% 조영 및 특수촬영 6% 혈관촬영 2.7%, 전산화단층촬영 5.8%로 나타났지만 연간 20 mSv가 넘지 않게 ICRP public 60 권고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11>

복부 단순 X선촬영조건과 피폭선량

부산백병원 진단방사선과

전성오 · 김동현

[목적]

의료용 방사선 이용은 국가의 사회복지 향상과 함께 날로 증가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X선의 사용으로 인한 피폭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연구 개발되었고, 또 이를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technic)이 요구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감광재료의 개발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촬영기술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고감도 증감지로 사용하던 CaWO₄ 증감지 대신 희토류계 증감지가 개발되어 화상의 개선과 함께 피폭선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복부 단순 촬영의 적정조건으로 알기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사용기기 및 재료]

X선 장치 : Toshiba Model KXO-15R

선량계 : Kyokko TLD 2500, 소자 Mg₂SiO₄-Tb